

# 행복한 책 읽기

수전 케인 '콰이어트' (RHK 판)

칼 융은 『심리유형』이라는 책에서 인간성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과 느낌이 내면세계에 끌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며, 혼자 지내면서 충전한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부세계에 끌리고, 사건 자체에 빠져들며, 사람과 어울리면서 충전한다고 했다.

저자는 미국처럼 외향적인 나라에서도 내향적인 사람이 두세 명 중에 한 명 꼴이라고 말한다. 그 통계를 놀라다면 그것은 외향적인 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면 쓴 내향인은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라커룸에서도, 월스트리트의 통로에서도 들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가 어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협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에 최고의 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오픈 된 사무실과 브레인스토밍의 실패를 예로 들며 좋은 성과를 내는 몇몇 경영자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쿨하다'는 말이 있다. 성격 특성을

##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떠난 상황에 맞닥뜨리면 계단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내향인이 외향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외향적 이상(理想)'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념 체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외향성 문화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지만 정작 이름을 떨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늘 혼자 있는 애플의 공동 창업주 스티브 워즈니악, 글을 쓸 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곁에 있는 것도 못 견뎌던 카프카, 미국의 유명한 그래픽 작가이면서 '아이들이라도 덩어리로 뭉쳐있으면 무서워요'라고 했던 시어도어 가이젤 등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던 내향적인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촉진하기 위한 실현 중에 피부 전도를 실험이 있는데, 이는 강한 감정과 자극 등에 반응하여 땀이 얼마나 나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이때 내향적인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땀을 적게 흘린다고 한다. 땀을 적게 흘리는 것은 얼굴이 두꺼워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얼굴을 만져보면 시원하다. 그 때문에 사회적 개념인 '쿨하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쿨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무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쿨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이 때때로 외향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내향적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외향적인 스티브 잡스, 내향적인 엘리너 루스벨트와 외향적인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합을 예로 들어 내향성과 외향성이 상생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협력이라고 말한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진시영 작가 '아트카'(푸조 208 랩핑) 개념도

'협력' '공동 작업' 등을 의미하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기업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예술가나 디자이너들과 기업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브랜드는 제품이 '예술 옷'을 입었다는 점에서 타 브랜드와 차별·고급화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에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선보인다. 디자이너들이 한국화나 공예가, 지역 기업들과 협업해 만든 제품들이 그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전에서 전시되는 루이비통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다. 루이비통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장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펼쳐온 브랜드 기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 만든 허벅 등 여행용 소품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지역 작가들과 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는 아트광주13 특별전에서 한불모터스(주)와 협업으로 푸조(Peugeot) 208 모델에 예술을 입힐 예정이다.

'빛'과 '미디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진씨는 'FLOW' 시리즈를 푸조 208 모델에 랩핑

하게 된다. 'FLOW'는 진씨가 지난 2011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작품으로 가야금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한국 전통 무용수를 따라서 흐르는 빛의 궤적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다양한 빛의 색깔의 흐름이 인상적이다.

진씨는 푸조 208 모델 특성을 고려, 그동안 선보였던 FLOW 시리즈를 총망라해 속도감이 느껴지면서도 빛의 율동이 돋보이는 작품을 랩핑할 예정이다. 그는 콜라보레이션된 푸조 차량이 전시되는 공간에도 실제 와이어 LED를 이용한 화려한 드로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진씨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에서도 지역 유명 맛집, 유명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 한 작품을 전시한다. 광주지역 맛집을 선



이조흠 작가 '밀리터리 심장'

도형을 통해 각기 다른 인간성들을 보여줬던 그간 작업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콜라보레이션도 진행 중이다. 조선대 디자인학과에 재학중인 박승혁(27)씨와 손잡고 광주 지역 술집의 메뉴판 디자인을 하고 있다. 단순한 술집 메뉴판이 아니라 작업 과정을 영상에 담아 미디어 작품의 하나로 선보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씨는 지역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커피북은 집과 함께 지난 5월 동구 장동 중앙도서관 건너편 커피북은집 본사에 갤러리 '스페이스 제로'를 열었다. 최근 이씨는 '하이브리드, 콜라보레이션, 통섭(전(가제)을 기획중에 있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기업, 작가와 지인이 함께 만든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통해 지역 작가와 기업들에게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씨는 "순수예술을 하는 일부 작가들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경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작가들이 예전처럼 앉아서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콜라보레이션은 세상,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작가의 작품을 알리고, 창작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브랜드를 입히다 감성을 선물하다

진시영·이조흠 작가, 기업 콜라보레이션 진행

## 의학도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

31일 전남대 의대음악회

음악을 사랑하는 의학도들이 모여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음악반 학생들이 펼치는 제55회 의대음악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전남대 의대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957년 음악을 좋아하는 전남대 의대 학생들이 모여 연주하는 무대를 가지면서 시작된 의대음악회는 올해로 55회째를 맞았다.

공연은 합창단원들의 노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어 관현악단원들이 호두까지 인형 중 '꽃의 왈츠', '황제 왈츠'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함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를 공연하고, 이어일 교수의 은퇴 기념 연주곡 '내가 전사의 말 한다해'로 막을 내린다. /이보림기자 boram@



## '키스해링을 찾아라'

'광주의 키스해링을 찾아라.'

광주문화재단은 9월9일까지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미관조성을 위한 작품 공모 '키스해링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의 공공시설 및 건물 벽화, 조형물 설치, 낙후시설 개조 미술작품 등을 접수 받는다. 누구나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작품 재료·형태·제작 방식에도 제한이 없다.

대인시장·예술의거리 미관조성

문화재단, 9월9일까지 작품공모

전문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4~5팀의 작품이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팀당 300만~500만원의 작품제작지원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나 무들마루 사업단 카페(http://cafe.daum.net/nodlemar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70-7452-74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서비스표 등록증**  
상표등록번호: 41-0241299호

**5-18낙지**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41-0241299호